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2

충현의 만나

2004

가정예배

야고보서 | 베드로 전 · 후서

요한 1 · 2 · 3서 | 시편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2

충현의 만나

2004

가정예배 야고보서 | 베드로 전 · 후서
 요한 1 · 2 · 3서 | 시편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 ①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 ②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③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 ④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 ⑤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 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고 백



내 나그네 길의 세월 그리 오래지 않고
조상의 나그네 길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죄와 고난으로 얼룩진
험악한 세월 보내었노라(창 47:9).

걸어온 길 부끄러이 뒤돌아보니
험악한 세월 굽이굽이마다
주의 자비와 긍휼 흐르고 넘쳤으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주신 그 은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고전 15:10).

선한 싸움 이제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 고대하는 것, 의의 면류관일세.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이 내게 주실 그 면류관 바라보며
남은 길도 믿음으로 살아가리(딤후 4:7,8).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우리 인생의 끝도 생각해 보고 믿음의 조상들처럼
신앙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한도

도읍 지리요지도 불려 오를 때도시
한서문 지리요지 불려 올 때도시
한서문 지리요지 불려 올 때도시
한서문 지리요지 불려 올 때도시

한서문 지리요지 불려 올 때도시
한서문 지리요지 불려 올 때도시
한서문 지리요지 불려 올 때도시
한서문 지리요지 불려 올 때도시

한서문 지리요지 불려 올 때도시
한서문 지리요지 불려 올 때도시
한서문 지리요지 불려 올 때도시
한서문 지리요지 불려 올 때도시

한서문 지리요지 불려 올 때도시
한서문 지리요지 불려 올 때도시
한서문 지리요지 불려 올 때도시
한서문 지리요지 불려 올 때도시
한서문 지리요지 불려 올 때도시
한서문 지리요지 불려 올 때도시

한서문 지리요지 불려 올 때도시
한서문 지리요지 불려 올 때도시
한서문 지리요지 불려 올 때도시
한서문 지리요지 불려 올 때도시
한서문 지리요지 불려 올 때도시
한서문 지리요지 불려 올 때도시

한서문 지리요지 불려 올 때도시

매일 성경묵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시 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오늘 본문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17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완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으며,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로 하여금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벧전 1:18,19)고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귀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영생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곧 영생을 받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갈 6:14)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1절). 이 믿음은 받아서 믿는 믿음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 살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야고보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풍랑 속에서도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의 열심만으로 믿는 믿음은 평안할 때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만이 어떤 경우에서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점점 부요해집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② ‘위임 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 중의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언어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것일수록 부패하면 더 더러워진다’는 말처럼, 말이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은 거듭나야 합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는 환상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뵈게 되었다고 두려워 떨니다. 그때 천사가 화제로 단에서 숯불을 취하여 이사야에게 날아와 이사야의 입에 대며 말하기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사 6:5-7).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10절). 이는 포도나무는 포도만 맺고 다른 열매는 맺지 않는다는 사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입술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듭니다.

“...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8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시 63:8)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바로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엡 2:1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 여기에서 ‘담대히 나간다’는 뜻은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 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즐거움이며,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갈 6:14)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8절)

기도 제목 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사 55:6).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에는 “저희가 주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라는 말씀이 수없이 반복됩니다(시 30편, 107편 참조). “...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4절).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소리, 억울한 울음소리, 눌린 자의 신음소리에 민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 간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민 20:16).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언약을 충실히 지키십니다. 언약은 ‘자르다’ 또는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언약을 세울 때 희생동물을 잘라 두 줄로 두고 그 사이를 언약자가 지나가는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언약은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은 새 언약에서 완성됩니다.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만찬 때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권념(眷念)하셨습니다. 권념이란 ‘알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이미 깊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신음을 아시고 고통 하는 백성들을 위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시 102:2)

기도 제목 ① 고난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인류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피를 받지 아닌 죄 없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18,19절).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범한 아담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덮어 주었습니다. 죄를 덮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러운 것들을 들추어 내지 않고 가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릴 뿐 아니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시 85:2)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갈 1:4)

기도 제목 ① 죄를 사하시며 깨끗케 하실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죄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의 샅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해결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24절).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셨지만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갈 3:13).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는 창으로 찔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얼굴에 침도 뱉었습니다. 그리고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너무나 치욕스러운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간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사 53:5)

기도 제목 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3일 만에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는데도 모든 성도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행 1:11). 예수님께서서는 때가 되면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시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나...”(22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요 5:17). 승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생의 시련과 시험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 고난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 13:8)

기도 제목 ①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 베드로는 고난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성도들이 때가 악할수록 더욱 근신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1-11절). 그리고 지금까지 언급한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결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12-19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13절).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당하게 되는 핍박과 치욕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세상과 타협하며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 엄격한 경계선을 두지 않고 자신을 세속에 순응시키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는 자들만이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롬 8:17). 그 이유는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영광의 날에 얻게 되는 즐거움은 이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완전한 즐거움과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고난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벧전 1:8)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 첫 단락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권면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서의 합당한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1-4절). 둘째 단락은 일반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로서 고난과 박해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대한 위로와 격려가 나타나 있습니다(5-14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6절).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겸손’과 ‘높임’을 대조시켜서 현재에 받는 어려운 고난을 통해 겸손할 때, 장차 그리스도의 때 곧 재림의 때가 되면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8).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런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 18:4)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베드로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본 장은 인사말(1-2절)과 성도들의 윤리적 삶에 대한 내용(3-11절), 본 서신을 집필한 동기에 대한 내용(12-15절), 베드로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대답(16-21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이 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4a절). 세상의 윤리 도덕, 재물, 영광, 사람의 본성도 썩어집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와 우상과 사상들도 썩어질 것입니다(약 5:2).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세상과 그 모든 것은 부패하고 변하며 없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영존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썩어질 세상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3b절). 그 방법은 우리를 부르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앎’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앎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앎’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벤허 1:2)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거짓 교사들의 출현과 그 특징(1-3절), 거짓 교사가 받을 심판(4-10a), 거짓 교사들의 불의함(10b-19절), 거짓 교사들의 운명(20-22절)에 대해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10a절). 첫째는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둘째는 더러운 정욕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타락한 인간본성에 따라 단순한 음행의 차원을 넘어 영적인 간음인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구속주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런 불의한 자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음란을 행하는 불의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중국에 이 불의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수치로 여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고전 1:18).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이며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만약, 아직도 우리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불의한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 13:14)

기도 제목 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을 증거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논박한 내용(1-13절)과 이단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성도 자신의 영적 성장으로 사단과의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라는 마지막 권면(14-16절)으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하게 일어나는 진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10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도적같이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마 24:43; 눅 12:39).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하늘과 땅이 체질이 뜨거운 불로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숨겼던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처럼 도적같이 임하여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날이 오면 이 세상의 고통과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안에서의 기쁨과 만족만이 충만하게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성결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현재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 24:4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원들이 ‘단기선교’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요한일서 1장은 전체의 서론부로 본 서의 저작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1-4절), 빛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설명하며(5-7절),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사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8-10절).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두움의 이미지를 대조하면서 빛된 생활을 강조합니다. 빛된 생활 가운데 사는 자는 하나님과의 사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7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빛’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귄을 가능하게 하실 분도 역시 ‘빛’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딤후 6:16).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빛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와의 사귄 속에서 빛 가운데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귀한 모습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엡 1:7)

기도 제목 ①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남녀 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과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 정신을 따라야 한다는 것, 곧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1-11절)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권면(12-17절)과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이단을 경계해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18-29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10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실은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심각한 손해를 자신에게 입힌 형제라 하더라도 그를 증오하거나 저주할 수 없으며 그의 어려움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그 분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 우리는 전에 어두움에 속해 있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의 빛은 바로 구원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형제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빌 2:15)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형제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② 캄보디아에서 단기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정희정, 김진경 자매가 대담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하나님의 아버지되심과 성도의 자녀됨(1-3절)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죄를 멀리해야 하며(4-9절) 진리 가운데서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살 것(10-24절)을 권면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속성을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 상히 여기지 말라”(13절). 이 세상의 속성은 미움입니다. 그 미움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할 때에도 의아해 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들이 행하는 미움과 같은 방법으로 대항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성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무엇보다도 세상으로부터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이를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1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요 16:3).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 성도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막 13:13)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게 하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 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거짓 가르침들이 활개 칠 때에는 진리의 확실한 시금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금석들 중의 하나는 예수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을 참된 것으로, 진리로 인정하고 믿는 태도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1-6절).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예는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숭고한 사랑이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7-12절).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사랑 안에서 온전해져 가야 합니다. 완전해진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강력한 시금석입니다(13-21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요, 조작된 사랑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외치면서도 주님의 생명까지 주신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고, 가장 가까이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을 외면하며 외식과 체면으로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진정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에서 우러나는 순종입니다. 새 계명의 순종의 의무는 신앙과 연결될 때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1-5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는 성령과 물과 피의 셋이니 이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6-12절). 저자는 본 서신의 결론 부분에 이르러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보여 주기 위하여 많은 확신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알게 하고 또 소유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희망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생한 자들을 보호하시므로, 중생한 자들은 죄 짓는 습관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있고,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은 끝으로 우상 숭배를 경고함으로 서신을 맺습니다(13-21절).

성령과 물과 피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물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이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성령은 신자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는 제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증거는 인간들의 증거와는 비할 수 없이 권위가 있고 확실한 신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인간에 의지한 증거가 아니라 성령과 물과 피에 의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전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심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거하는 이가 인간이 아닌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빌 1:21)

기도 제목 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② 이 뜻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저자는 인사말에서부터 진리라는 말을 세 번씩이나 사용함으로써 본 서신의 주제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에 근거합니다(1-3절). 사랑을 새 계명같이 쓰지 않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임을 강조합니다(4-6절). 또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들의 거짓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자기 점점을 통해 이미 배운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환대하지 말아야 합니다(7-11절). 끝으로 저자는 곧 독자들을 대면하리라는 계획을 말하고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12-13절).

본문은 우리에게 이단적인 교사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길거리에서 인사하면서 성경 말씀에 대해 논해 보자는 이단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들을 무조건 피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확실하게 무장하면 이단적인 가르침에도 능히 맞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서에서 그들을 피하라는 가르침의 경우에는 환대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불 명령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훈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씀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기도 제목 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② 각 나라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저자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1절). 가이오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진리를 따르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다(2-4절). 또한 저자는 가이오가 순회 전도를 위하여 나그네된 자들을 선대하고 많은 도움을 준 일에 대하여 칭찬합니다(5-8절). 이제 저자는 논조를 바꾸어 순회 전도를 위하여 나그네된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접대하는 자들까지도 내어 쫓는 디오드레베를 비판하고 있습니다(9-10절). 그리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는 못사람과 진리와 저자가 증거하는 선한 사람입니다(11-12절). 조만간 만나기를 바란다는 말과 간단한 문안 인사를 함으로써 서신을 맺습니다(13-15절).

가이오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몸이 건강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기도의 내용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잘못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범사가 잘되고 몸이 건강한 것이 곧 영혼이 잘되는 척도인 양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곤란을 당하면서도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육신적인 건강의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삶의 현실 속에서는 어느 한 쪽만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만 받았을 수도 있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적인 차원에서 어느 한 쪽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바른 신앙관이 깨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귀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복된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 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하여 잘 알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유지하시는 전능자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구원자이시므로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에 대해 과거의 비참한 역사를 거울삼아서 외식으로 찬양치 말고 진실하게 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들어 있는 본시는 성전 예배 중에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노래입니다.

본장을 내용상 구분하면, 찬송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회중이 부르는 노래로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전반부와(1-7절), 예배 인도자의 독창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면서 바른 예배 자세를 갖추도록 교훈하고 있는 후반부(8-1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로서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호와와는 모든 신위에 크신 왕으로서 존귀와 위엄이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본장에서 우상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고 해서 그 실재를 인정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모든 이방인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대상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에 대한 지배권조차도 갖고 계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를 자주 망각합니다. 곧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에 자신의 의지를 너무나 집중시켜, 하나님의 주권을 자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더욱 깨어 있어 항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분명히 인정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이며, 우리의 크신 왕이십니다.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를 통해 전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 신들보다도 위대하시며, 의와 진리로 우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자연의 요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다윗이 아삽에게 지어 준 대상 16:8-36의 일부분인 23-33절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학자들은 시편의 저작자가 다윗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장에서 자주 반복되는 어법과 문체가 후기 히브리인들의 전형적인 방식이므로 다윗이 저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장은 포로 이후에 성전이 재봉헌 될 무렵 여호와 의 통치를 찬양하는 어떤 시인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장을 내용상 구분하면 높으신 하나님께 대한 우주적 찬양을 선언함과(1-3절), 하나님의 임위하심(4-6절), 만민의 찬양 선언(7-9절), 하나님의 역할(10-13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실행 조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물을 드리는 것과, 성결한 생활로써 하나님께 봉사하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드러지는 순종의 구체적인 표현을 원하시는데, 특별히 그것은 성전 내에서 예배 시 찬양과 제물을 드리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을 찬양케 하는 수단으로서 모든 생활을 요구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드러내야 하며 좀더 성실한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기도 제목 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시편은 하나님의 신정(神政)에 대해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편 96편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심판에 대한 즐거움의 분위기를 주는 것과는 달리, 본 시편은 하나님의 엄위로우신 심판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주는 분위기의 시입니다. 이 시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의 미래를 조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메시아에 관련된 천국의 장래를 예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본문이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현현(Theophany)'을 주세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시편의 내용을 특징적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언함(1-2절), 하나님의 현현(3-6절),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의 결과들(7-9절), 하나님의 현현과 의인의 모습(10-12절) 등이 97편의 내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위엄을 묘사한 후 성도들이 지녀야 할 신앙 자세에 대하여 결론적인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을 성실히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실하게 생활할 때에 성도는 악인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들이 누리는 영적 기쁨으로 인해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에 재림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종국적인 구원의 소망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성도들이 보여야 할 경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① 오늘도 십자가의 은총과 자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진실하신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광의 찬송이 됩니다(1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은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을 끝날까지 지키시며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사역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은 마침내 모든 피조물들의 기쁨의 노래가 됩니다(3~4절). 이 큰 구원을 깨닫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늘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총을 입은 사람들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큰 구원을 온 땅 끝까지 선포하여야 합니다(4절). 마침내 열방은 주님의 거룩하심과 다스리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시 22:27).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신 4:37). 애굽의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출 12:29-42).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시며 회복시키셨습니다(사 27:12). 그 분의 놀라운 구속정령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룩한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롬 8:32).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사랑과 그 놀라운 구원은 이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찬송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마다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만을 간절히 기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고후 5: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엡 1:7)

기도 제목 ① 구원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하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영원히 찬송 받으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1절). 공의를 영원히 굳게 세우시며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6-8절).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믿는 사람들의 참된 행복이 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높이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여야 합니다.

밤 같은 세상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며 죄악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귀를 기울여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거룩하신 영광의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헬에서 나신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평강의 왕이십니다(4절). 그는 세상의 빛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영원한 구원이 되십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며 영생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제 19:6). 주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미 5:2)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즐거움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신앙고백입니다(1-2절). 여호와께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는 오직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며 그분이 돌보시는 양들입니다(3절). 찬송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가슴으로 부르는 영혼의 노래입니다. 변함없는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가 피곤하여 넘어질 때 붙드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애 3:19).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야 합니다.

“그 문에 들어가며 …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믿음은 아름답습니다(4절).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유 1:24).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교회를 묵숨처럼 사랑하는 믿음이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신령한 예배는 신앙고백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누리는 복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시 100:1)

기도 제목 ① 신령한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을 주소서. ② ‘충현선교훈련’(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기뻐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려는 다윗의 신앙고백과 결단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시 9:2).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아름다운 믿음은 주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모습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1절). 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려는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강력한 임재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2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강함을 더욱 의지하려는 다윗의 겸손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사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골 3:16).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견고하게 서며 개인의 신앙은 온전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입니다. 구원 받은 성도들은 악한 것을 미워하며 티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3-6절).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 영혼의 안전보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인생을 맡기며 십자가를 질 것인가? '세상의 헛된 욕망을 좇을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는 사람마다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시 107:7)

기도 제목 ①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무한교회 문화 연구 위원회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환란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회복의 때를 바라보는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시 18:27). 어떤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더욱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1-2절).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비참하고 쓰라린 고통에서 구원하시며 빈궁한 사람들과 갇힌 사람들의 탄식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공홀에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17절).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애 3:32).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괴로움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들은 그들을 조롱하였으며 그들의 인생은 석양의 그림자 같았고 생명의 기운은 마치 풀처럼 시들어 갈 때 눈물은 그들의 음식이 되었습니다(8-11절). 극심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택하신 주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마 26:28).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며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곤고한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임할 것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시 91:15)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② 전 교회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1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은 그를 향한 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게 합니다. 끝없는 사랑과 자비로 보호하시며 높이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4절).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도록 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은 도무지 측량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마음에 넘치는 평화가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십니다(1-3절). 그러므로 그 풍성한 은혜를 힘입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자하심을 찬송하여야 합니다(대상 16:33). 찬송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장 큰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 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절정에 이르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는 참 능력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시 103:4)

기도 제목 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②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승미, 유미나 자매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줍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봅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창조질서의 오묘함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룩한 찬송을 통하여 창조사역의 역동성과 함께 피조물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천지창조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함과 강력한 주권은 찬송의 제목이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시 147:1).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창조의 신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실존과 능력과 역사와 피조물의 오묘함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24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30절).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고백이 되어야 합니다(33절).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구원하심을 선포하여야 합니다(엡 5:19).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섭리를 찬송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피조물 하나하나에 쏟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보살핌과 사랑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실성을 증거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고 있습니다(33-35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시 19:1)

기도 제목 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주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택하신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신실하신 분이시며 주님의 약속은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참 능력이 됩니다(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때로부터 택하신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가나안땅에 정착할 때까지 민족형성의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과 그 성취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9-11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풍성한 축복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던 모든 역사는 오직 아브라함과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42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그들 가운데 또는 그들을 통하여—이루어 가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죄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더욱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롬 4:20).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약속과 생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늘 찬송하고 찬송하여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시 142:7)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사랑을 늘 찬송하게 하소서. ② 날마다 삶 속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역예배공과

12월 구역 공과 포인트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묘자(Wonderful), 모사(counselor), 평강의 왕(Prince of Peace)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좇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12월 구역공과개요

금요일	본 문	제 목	핵심 포인트
12/03	사 9:6	기묘자 (Wonderful)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Wonderful)입니다.
12/10	사 9:6	모사 (Counselor)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사(counselor)입니다.
12/17	사 9:6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Prince of Peace) 입니다.
12/24	왕상 12:25-33	세상 것들을 좃지 말라	세상 것들을 좃지 말고 겸손히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12/31	고전 11:26	주의 죽으심 (Lord's Death)	주의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하며 겸손히 주의 만찬을 준비합시다.

1.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공과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소요시간 25분	소요시간 15분

01 기묘자 (Wonderful)

| 포인트 |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Wonderful)입니다.

| 찬송 |

106장(이새의 뿌리에서) 446장(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 본문 사 9:6 |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2004년에 내가 겪었던 가장 놀랄만한 일들에 대해서 나누어 봅니다.

이 세상에는 놀랄만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일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구주의 탄생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죽음 그리고 장차 올 왕국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는 예수님의 완전함을 설명해 주는 여러 가지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묘자속에 담겨있는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묘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사 9:6)

Q ‘기묘자’(Wonderful)의 의미는? _____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사 13:18)

이사이야는 메시아를 ‘초자연적인 분’이라고 일컫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 땅에는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 행한 놀라운 업적들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이 태어나기 이전의 일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태어나기 이전의 일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오직 메시아 한 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묘자입니다.

1 탄생의 기묘함

예수님의 탄생은 기묘했습니다.

사 7:14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반려견 1주 1마리씩 8일이 걸렸지만 1마리씩 1일이 걸리며
(반려견 1마리씩 8일이 걸렸지만 1마리씩 1일이 걸리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되어진 이 탄생의 예언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눅 130,31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한자어·외국어가 제1언어·제2언어·제3언어·의외호칭
 (한자·한글·외국어)

Figure 10.10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신비롭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번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으며,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2 생애의 기묘함

예수님의 생애는 기묘하였습니다.

Q 빈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과 그 의미는 ?

□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로 말미암고 □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안에 함께 있느니라 (골1:15-17)

예수님은 최고의 권세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의 고충을 이해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이셨습니다. 영생을 구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지극히 겸손하였습니다.

사 32:2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바로 기묘자 예수님이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기묘한 생애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3 죽음의 기묘함

예수님의 죽음은 기묘했습니다.

사 535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Q 빈 칸을 채우며 큰 소리로 읽어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히 9:27,28)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4 천국의 기묘함

장차 임할 천국에서도 예수님은 기묘자이실 것입니다.

사 35:9,10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시는(요14:2,3) 천국은 기묘합니다. 그곳에는 악한 것이나 슬픈 일이 전혀 없을 것이며 영원한 행복이 한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Q 다음의 성구는 디모데후서 4장 몇 절에 있습니까? _____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딤후 4:1)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이십니다.
탄생, 생애, 죽음, 천국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여 주십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기묘한(Wonderful)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둘씩 짝지어

예수님의 기묘함에 대해서 배운 내용을
둘씩 짝지어 설명해 봅니다.

간절한 기도

1.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2.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3. 우리 구역 식구들의 기도제목을 들으소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02 모 사 (Counselor)

| 포인트 |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사(Counselor)입니다.

| 찬송 |

120장(오 베들레헴 작은골)

119장(옛날 임금 다윗성에)

| 본문 사 9:6 |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모든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가까이에 있는 이름의 의미를 생각한 뒤 나누어보세요.

· 우리 교회 이름과 그 의미는?

· 나의 이름과 그 의미는?

모세, 다니엘, 요엘, 다윗, 호세아, 미가, 그리고 이사야! 이들은 모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흔히 아기의 출생 소식을 알릴 때 아기의 진짜 이름은 하나뿐이지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릴 때에는 예수님의 인격을 설명해 주는 몇 가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모사'입니다.

모사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 모사라 ...”(사 9:6)

Q '모사' (counselor)의 의미는? [영어적 의미] _____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 (시 119:24)

1 모사 : 도움을 주시는 분

모사로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사 = 완전한 □□ (Perfect wisdom)

예수님은 세상에 나시면서 영생의 말씀을 가져오셨고, 그 결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인(神人)이 되시면서 완전한 모사가 되셨습니다. 가난한 목자들에게도,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아픈 사람들에게도, 부자들에게도, 다른 모든 죄인들에게도 완전한 모사가 되었습니다.

· 성경을 찾아서 다함께 크게 읽습니다. ▶ 빌 2:6,7

2 모사: 답을 주시는 분

모사로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답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 니모데모의 질문(요한복음 3장 참조)에 대해서

요 3:3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 수가성 여인의 질문(요한복음 4장 참조)에 대해서

요 4:14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 도마의 질문(요한복음 14장 참조)에 대해서

요 14:6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대한 답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나쁜 모든 진리를 진실되게 알려 주시는 완전한 모사이십니다.

3 모사 : 소망을 주시는 분

모사로서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 성경을 읽고, 빈 칸을 채우세요.

누가복음 19:1-10

□□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망

누가복음 23:39-43

십자가에 달린 □□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망

예수님은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마 11:28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완전한 모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십자가로 路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구주 예수님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과 답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모사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는 모든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도 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사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완전한 모사이신
예수님께 나의 근심을 고백합니다.

간절한 기도

1. 모사이신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2. 모사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3. 우리 구역 식구들의 기도제목을 들으소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03 평강의 왕(Prince of peace)

| 포인트 |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Prince of peace)입니다.

| 찬 송 |

112장(그 맑고 환한 밤중에) 119장(귀중한 보배함을)

| 본문 사 9:6 |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내가 생각하는 참된 평강은 어떤 것인지 각각 정의하여 본 뒤 서로 나누어 봅니다.

참된 평강이란?

_____입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 등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성도에게 있어서 평강이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 (요14:27)이어야 합니다. 그 평강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참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 속으로 묵상해 봅니다.

평강의 왕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 평강의 왕이라 ...”
(사 9:6)

이사야는 장차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평강의 왕’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이름들이 또 있습니다.

생명의 □(행 3:15)

땅의 □□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계 1:5)

평강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평강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십니다.

평강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1 평강의 왕 : 십자가를 통한 화평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맺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자신들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화평의 다리는 오직 하나, □□□뿐입니다.

사 53:6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엡 2:14,17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골 1:19,20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담을 허물어뜨리셨으며 모든 것과 더불어 화평을 맺으셨습니다.

2 평강의 왕 : 기도와 감사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한 기도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맺은 후에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이며 전적으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빈 칸을 채우세요)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되며 무엇에든지 □□하며 무엇에든지 □□하며 무엇에든지 □□하며 무엇에든지 □□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할 만하며 무슨 □□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하라 (빌 4:6-8)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3 평강의 왕 : 재림의 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완전한 평강의 날입니다.

이사야의 예언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을 쳐서 □□을 만들고 그 □을 쳐서 □
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사 24)

천사의 선포

자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이요 땅에서는 기
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로다 하니라 (눅 214).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전쟁의 위협이
나 공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
들에는 평화 뿐입니다.



사 116-9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사 35:1,27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 임하게 될 이 특별한 평강 안에
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동물들 사이에도 평강이 이루
어질 것입니다. 모든 폭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완전한 평강이 실현됩
니다. 완전한 이 평강! 이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찬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
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살전 5:23)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물 구입이나 친지 방문이나 외식 등 전혀 엉뚱한 일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내용을 명심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메시아가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요 메시아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나의 준비

성탄절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한 뒤 나누어 봅니다.
(다음주 구역모임 때 서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간절한 기도

1.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믿게 하소서
2. 예수님을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소서
3. 우리 구역 식구들의 기도제목을 들으소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갑시다.

04 세상 것들을 좇지 말라

| 포인트 |

세상 것들을 좇지 말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히 회개하며 가까이 나아갑시다.

| 찬 송 |

474장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464장(곤한 내 영혼 편히 쉬 곳과)

| 본 문 왕상 12:25-33 |

²⁵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느엘을 건축하고 ²⁶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²⁷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²⁸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²⁹하나를 베엘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³⁰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³¹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³²팔월 곧 그 달 십오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엘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엘에서 세웠더라 ³³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팔월 십오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엘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2004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세상을 좇아갔던 나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때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상을 좇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항상 죄를 향해 달려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좇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말씀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좇아갔던 여로보암에 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 죽음후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하며 강력한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왕상 11:9).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솔로몬의 아들 □□□□에게 다 물려 주지 않으시고 열 지파를 뚝 떼어서 솔로몬의 종이었던 □□□□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됩니다.

1 여로보암 : “스스로 이르기를”

왕상 12:26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이 말 속에는 여로보암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부패할 따름입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2 두 종류의人 : “아니요, 내 생각에는” “예,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항상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아니요, 내 생각에는”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른 반응은 “예, 하겠습니다”입니다.

(빈칸을 채우세요)

사 55:8

□생각은 □□생각과 다르며 □길은 □□길과 달라서

렘 17: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잠 16:25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의 길이라

“아니요, 내 생각에는”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만 담겨있습니다. 반면에 “예, 하겠습니다”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5 여로보암 : “새로운 변화 그러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행동한 여로보암은 결국 예배와 관련하여 세 가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빈칸을 채우세요)

예배의 장소	예루살렘 ➔
예배의 날짜	7월 15일 ➔
예배의 진행	레위지파 제사장 ➔

예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그것이 자기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로보암의 거짓말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인들도 먼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예배하는 일이 불만스러웠습니다. 결국 교만과 편리함을 원하는 마음 때문에 여로보암과 그의 백성들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변화! 그러나 이것은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6 말씀 앞에 : “바울의 회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그는 회개하였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였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행 26:9).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에 못 박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전 2:2).

7 말씀 앞에 : “나의 회개”

우리도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 더 쉬운 길을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편리함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라고 외칩니다. 마치 회개 전의 바울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히 나의 전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 4:17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십자가로 路

여로보암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여로보암처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만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삽니다. 바로 세상을 좇아 사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은 심판과 영원한 형벌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새로운 출발 2005

2004년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출발을 결심합니다

(주일예배 15분전, 52주, 전도, 선교)

간절한 기도

1. 나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2. 2005년 오직 예수님만 좇는 삶이 되게 하소서
3. 우리 구역 식구들의 기도제목을 들으소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05 주의 죽으심 (Lord's Death)

| 포인트 |

주의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하며 겸손히 주의 만찬을 준비합니다.

| 찬 송 |

281장(아무 흠도 없고) 284장(주 예수 해변서)

| 본 문 고전 11:26 |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005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나누어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2005년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실하게 바라볼 때 인생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주의 만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주의 만찬에서 중요한 것은 구속과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 전에 주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1 주의 죽으심 : 과거[Past Life]

주의 죽으심은 과거의 삶을 해결하여 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

“세상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_____

“어린양”은 누구입니까? _____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대속을 받았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였습니다.

·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써 보세요 _____

롬 5: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를 안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벧전 1:18,19/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로 한 것이니라

2 주의 죽으심 : 현재[Present Life]

주의 죽으심은 현재의 삶을 돌보아 줍니다.

요일 1:7,9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재에도 구속의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케 하십니다. 이것은 평생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일입니다.

· 성경을 찾아서 써 보세요

계 15 /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

시고 _____ 예수 그리

스도로 말미암아 _____ 이 너희에게 있

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_____

에서 _____ 하시고

3 주의 죽으심 : 미래[Future Life]

주의 죽으심은 미래의 삶을 보장해 줍니다.

- 성구를 참조하여 빈 칸에 들어갈 말을 써 보세요.

빌 3:21/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살전 4:16,17/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perfect)케 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salvation)을 주십니다. 주께서 □□(descend)하실 때 우리는 영원히 □(the Lord)와 함께 있게 됩니다.

십자가 은혜는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스러운 소망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합니다.

딤후 2:13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모두 돌보아 주십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히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주의 만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悔改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계 2:21)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철저히 죄를 悔改합니다.

간절한 기도

1. 주의 죽으심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2.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소서
3. 우리 구역 식구들의 기도제목을 들으소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 갑니다.

남성도구역예배공과

‘남성도구역공과’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세상 것들을 좇지 말라

(왕상 12:25-33)

오늘 본문 말씀은 여로보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분열된 왕국을 다스렸던 두 명의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열 지파를 다스렸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국을 다윗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력을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의 자녀들은 밋세바 때문에 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밋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가장 높은 지혜를 선물로 주시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하며 강력한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0절에 보면, 그에게는 천 명의 왕비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많은 왕비들은 하나님께서 교류하지 말라고 금하신 이방 나라 출신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니, 험오스러운 아스다롯과 밀곰과 그모스와 몰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11:9).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다 물려주지 않으시고 열 지파를 뚝 떼어서 솔로몬의 종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종이었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반역하였고(11:26), 하나님께서

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를 이스라엘 열 지파의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이 된지 얼마 안 되서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12:26). 바로 여기에 그의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그 나름대로의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항상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요”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른 반응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입니다. “내 생각은요”가 결코 아닙니다. “내 생각은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인간의 냄새만 폴폴 날 뿐입니다. 반면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럴 듯하게 보이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사 55:8b).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젊은 이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급격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개혁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계산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잠언 16장 25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당한 지역에 금송아지 두 마리를 세웠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자주 내려가다 보면 마음이 변해서 유다와의 통일을 원할 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27절). 그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여호와께로 돌

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일단 뭔가 걱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명예와 복지를 방어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경건치 못한 모든 종교의 중심에는 항상 '자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참된 종교의 중심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의 뿌리는 삶에 대한 만족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16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 자기의 마음을 따라 하는 생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합니다. 로마서 10장 3-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로보암은 경배의 장소를 제멋대로 바꾸어놓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자기의 두려운 마음을 감추려고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그가 행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지만, 그는 그것이 자기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는, 예루살렘은 너무 멀고 그곳까지 여행하는 것은 너무 힘이 들므로 자기가 세워놓은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도 먼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경배하는 일이 내심 불만스러웠습니다. 결국 교만과 편리함을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시편 106편 20절은 말합니다.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여로보암이 바꾸어 놓은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쳐두고 다른 지파 사람들에서 사람들을 뽑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31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했고, 여로보암은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강력한 임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막절 절기의 날짜도 바꾸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날짜는 7월 15일인데, 여로보암이 사는 지

역에서는 8월 15일이 되어야 열매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8월 15일로 초막절 날짜를 바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크게 환영하였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예배와 관련하여 세 가지 변화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문화, 관습, 그리고 환경을 잘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분도 잘 알았습니다. 백성들이 처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도 민감하게 느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가 만들어내는 변화를 이해할 수 있었고 찬성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200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예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바꾸고 좀 더 쉬운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성경 말씀과는 달리 좀 더 쉽고 간편한 방식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은 21세기이니까 예배를 조금 바꿔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해해 주실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일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법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행 26:9).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겸손히 그리고 정직하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자녀가 아니라 창조주의 자녀가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만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부인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른 것들을 쫓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4년 12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만나 : 이창수(1-8일), 윤수일(9-16일), 최성규(17-23일), 이성진(24-31일)

구역예배공과 : 양재웅 목사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점]
